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

I. 개요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19년 7월 14일(일)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7개교에서 실시하였다.

(1) 응시자는 전체 지원인원 11,161명(경제적 취약대상 응시로 면제 443명 포함) 중 92.20%인 10,291명이 응시하였으며, 지구별로는 서울 7,760명, 수원 628명, 부산 562명, 대구 386명, 광주 272명, 전주 163명, 대전 384명, 춘천 92명, 제주 44명이다. 결시자는 원서마감 이후 응시 포기자(환불자)를 포함하여 총 870명이다. 수험생 중 지체장애인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대상자는 36명이었으며, 별도로 제작된 축소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되었다.

(2) 문제지와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에 탑재하였으며, 정답이의신청 일정과 출제 기본방향 및 영역별 출제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2. 참고로 협의회에서는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입학설명회”를 2019년 8월 30

일(금) ~ 31일(토),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서울 성동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II. 일반 개황

1. 시험 시간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영역 (09:00~10:10), 2교시 추리논증 영역 (10:45~12:50), 3교시 논술 영역 (14:00~15:50)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2.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및 심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 신청 접수 : 2019. 7. 14.(일) 17시 ~ 2019. 7. 17(수). 17시
- 응시생에 한하여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이의 처리 기간 : 2019. 7. 15.(월) ~ 2019. 7. 30.(화)
- 확정 정답 발표 : 2019. 8. 1.(목)

3. 채점 및 성적 통지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8월 14일(수)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

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의 경우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 및 그 활용여부를 정한다.

Ⅲ. 출제의 기본방향

1.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정보를 처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수험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하였다.
3.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적 비판력, 창의적 적용 능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4.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5. 시중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제는 가능한 한 출제에서 배제했으며,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제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제시문 수준 및 문항 설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Ⅳ. 영역별 출제 방향

1. 1교시 : 언어이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언어이해 영역은 법률 관련 전문가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소양과 통합적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시험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원활하게 수학하려면 학부 전공과 상관없이 공적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글들을 독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 영역은 수험생이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대하며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출제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이번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통합적이며 심층적인 독해 및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내용 및 표현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제시문을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 또는 개발한다.
- 제시문의 핵심 정보나 주요 세부 정보들을 이해하고, 제시문의 대의를 파악하며,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제시문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문에 없는 사항을 추론하거나, 그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그 적실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출제 범위

언어이해 영역은 언어 이해 능력을 텍스트를 기반으로 평가하기 위한 영역이다. 따라서 언어이해 영역은 주제나 표현, 텍스트 형식 등이 상이하며, 다층적이고 고차원적 사고가 담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텍스트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히 읽어 내는 능력,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적절한 추론이나 비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제시문의 정보를 관련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등을 두루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시험에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제시문의 소재를 구하되, 중요한 공적 가치를 지닌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언어이해 영역의 평가 목표들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번 시험에서 제시문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양 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유도한다. 여러 학문 분야에 두루 사용되는 기본 개념이나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되, 각 학문 분야의 최신 이론이나 연구 동향 또는 시의성 있는 문제 상황을 반영한 주제 등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선정하였다.

둘째, 문항 세트를 원리적 모델들을 기반으로 설계한다. 이 설계를 통해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법학의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제시문을 배제한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학제적 내용 분야와 각 주제들을 연계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법적 문제들과 간학문적으로 연관됨을 보여 주는 제시문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법의 이론적·현실적 연관성, 즉 법이 다른 학문 분야와 소통하는 양상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양상 등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하게 하였다.

다섯째, 최근의 시사, 학문적 관심과 동향을 반영하여 제시문 독해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3) 제시문 및 문항

언어이해 영역의 시험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요한 목표가 있다. 따라서 언어이해 영역의 출제에서는 가독성이 뛰어나고 논지가 분명하며 완결성이 높은 제시문을 선정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시험 역시 앞서 정립되었던 출제 목표와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수험생의 고차원적인 독해 능력 및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의 4개 내용 영역에서 10개 문항세트(총 30문항)를 출제하였다. 각각의 문항 세트는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등 독해와 관련된 4개 인지 활동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문항 유형을 설계하였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기존의 출제 경향대로, 제시문의 다양한 정보들과 <보기>의 형태로 제시되는 정보들을 연결하여 해결하는 문항들을 다수 출제하였다. 종합적인 판단 및 추론 능력, 비판 및 적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들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험생들의 논리력과 분석력, 종합적 판단력을 두루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각 분야별로 제시문 선택의 주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문’ 분야에서는 먼저 식민지 시대 최고의 리얼리스트로 꼽히는 소설가 채만식의 작품 「탁류」를 심도 있게 분석한 비평문을 선택하였다. 식민지 근대화의 논리와 개인의 운명 간에 존재하는 상동성을 추적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간과 모럴의 가능성을 천착하는 이 비평문은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 인문적 교양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어 각종 사료를 재구성하여 조선 시대의 성리학적 가족 윤리를 반추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선택하였다. 특히 중혼(重婚)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법적 논의들을 비교하면서 거대 서사가 아닌 미시 서사로서 우리의 역사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논리학의 차원에서 시간여행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상황들을 성찰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이

글을 통해 시간에 대한 다양한 표상들을 이해하고 존재의 문제를 형이상학적으로 성찰해 보게 하였다.

‘사회’ 분야에서, 먼저 지식인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근대 초기부터 탈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 변화, 정치 변동, 문화 교체에 따라 지식인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이론가들이 제기한 주장들을 소개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주었다. 다음으로 헨리 조지와 그 계승자들의 ‘토지가치세론’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정책적 함의를 다룬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특히 경제 활동과 세제 간의 상관관계,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그 해결책 등에 대해 분석하는 이 글을 통해 수험생들은 우리 사회의 경제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규범’ 분야에서는 먼저 ‘도덕적 행위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룬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인간의 삶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도덕적 상황들을 윤리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바람직한 행동의 방법과 원리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어 언어학의 형태소 개념을 가지고 법률 언어의 의미 변동 문제를 분석하는 글을 택하였다. 법문의 의미 해석과 적용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인접 학문의 관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연륜연대학이 법적 문제 해결에서 지니는 유용성을 소개하는 글을 택하였다. 나이트 분석이 법적 문제의 해결에 적용된 사례와 그 원리를 소개하는 이 글은 법의 문제를 간학문적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교양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먼저 우주선의 운동과 궤도 문제를 설명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우주선이 궤도상에서 다른 로켓과 랑데부할 때 나타나는 여러 물리적 현상을 추적하여 역학적 에너지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이 글은 인문사회 계열 출신의 수험생들도 과학적 내용이 담긴 글에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 생명과학의 한 주제인 ‘오믹스’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DNA와 RNA, 단백질의 관계들을 설명하고, 암세포를 분별하는 데 동원되는 단백질 분석의 기법을 소개하는 이 글은 생명과학에 대해 새로운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난이도

2020학년도 언어이해 영역 시험에서는 난이도의 향상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적정 난이도를 확보했던 2019학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평가 자체만을 목적으로 논리나 사고를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복잡하게 구성하는 난잡한 제시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했다. 제시문 자체만을 통한 난이도 확보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통한 난이도 확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바람직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난도의 문항과 다소 평이한 문항을 골고루 배치하는 문항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변별력 확보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의 가독성은 최대한 높이 되, 제시문을 비판적 관점에서 심도 깊게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세밀하게 측정하는 방향으로 문항들을 설계하였다. 특히 추론과 적용 영역에서 단순한 추론

이나 적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추론하거나 적용, 비판하는 문항을 다수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독해 능력과 사고력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기출 문제나 사설 문제집을 푸는 경험, 사교육의 경험으로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도 최대한 방지하였다. 그리하여 친숙한 소재나 제재가 담긴 제시문이라도 수험생이 단순히 지식을 통해 제시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시문의 정보를 분석적,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의미를 낱설게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문항 구성도 유사한 제시문이나 기출 문제를 접했던 경험에 의존해서는 절대 정답에 도달할 수 없도록 묻는 방식을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기출 문제나 사설 문제집을 중심으로 한 편협한 학습이 이번 시험을 보는 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 고차원의 사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의 교양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평소에 풍부한 독서 경험을 쌓아야 함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특정 전공에 유리한 경우가 없게 하는 데에도 이번 출제진은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해당 전공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시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여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언어이해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주로 통합적 이해력과 심층 분석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시문 분량과 세부 문항 설계 방식에 융통성을 두었다.
- 제시문의 내용과 문항 구성에 있어서 기

존 문제나 사설문제집을 푸는 경험에 의존해서는 풀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의 선택을 피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식을 취하였다.
- 문항 및 선택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선택지 선택에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2교시 : 추리논증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추리논증 시험은 이해력, 추리력, 비판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제시된 글의 의미, 상황, 함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특히 정상적인 학업과 독서 생활을 통하여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문으로 구성하였다.

전 학문 분야 및 일상적, 실천적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문항의 제재를 선택함으로써 영역 간 균형 잡힌 제재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시문의 내용에 관한 선지식이나 제시문으로 선택된 영역의 전문 지식이 문항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주력함으로써 전공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영역 내에서도 제시문의 세부 분야를 다변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추리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논증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규범, 인

문, 사회, 과학기술 각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있게 출제함으로써 상이한 토대와 방법론에 따라 진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추리와 비판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파악하고 점검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출제 범위 및 문항 구성

40문항으로 확대된 작년 시험의 기초를 유지하되 세부 학문 분야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인문학 영역의 문항이 늘고, 규범, 사회, 과학기술 영역의 문항은 예년과 큰 차이 없이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규범 관련 제재를 다루는 13개 문항, 철학과 윤리학을 포함한 인문학 제재를 다루는 12개 문항,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6개 문항, 자연과학 제재를 다루는 6개 문항, 그리고 논리·수리적 추리를 다루는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올해 추리논증 시험에서는 추리문항을 55%, 논증문항을 45% 정도로 출제함으로써 양쪽 사고력이 골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규범적 평가를 다양한 상황으로 확대 적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증거에 비추어 가설이나 견해의 올바름을 평가하는 문항의 출제 비중도 늘렸다.

(3) 난이도

제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순화하여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추리나 비판 및 평가의 단계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보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출제 시 유의점

- 제시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문의 독해부담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추리능력과 비판능력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 선지식에 의해 풀게 되거나 전공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해지는 제시문의 선택과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였다.
- 법학지식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문항에 나오는 개념, 진술, 논리구조, 함의 등을 이해하는 데 법학지식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을 피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식을 취하였다.
- 문항 및 선택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선택지 선택에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3교시 : 논술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영역은 공지된 출제 방향에 따라 출제하였다. 첫째, 2개 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였고, 둘째, 평가의 방향도 제시문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능력과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출제 범위

논술 영역은 법조인의 기본 조건으로서 사안 분석 및 해법 제시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두 문항은 규범 해석과 규제 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선정하였다.

(3) 문항 구성

1번 문항에는 두 개의 사례와 세 개의 관점이 주어지고, 그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사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중세의 한 국가에서 새로운 사태에 대한 기존 법의 유추적용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종교국가에서 도박의 개념을 둘러싼 해석에 관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두 사례의 기본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세 관점 중에서 선택한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관점들을 반박하는 것이다. 셋째, 두 사례의 법적 판단을 정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번 문항에는 두 개의 사례와 규제 형식 그리고 규제 지침이 주어지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네거티브 규제가 문제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포지티브 규제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각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나

타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형식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주된 논점이다. 이때 규제 지침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규제 형식을 논변하도록 하였다.

(4) 난이도

논술 영역의 목적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이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안배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18학년도부터 도입한 사례형 문항 유형을 안착시키기 위해, 올해 출제된 2개 문항을 통해 각각 사례를 평가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5) 유의점 및 강조점

- 1, 2번 문항의 배점을 동일하게 50점으로 배분하였다.
- 수험생은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답안을 작성하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